



종이 자전거



발을 뗄 수 없었다. 무더운 여름 햇살 아래서 나는 그렇게 서 있었다. 턱을 타고 흐른 땀방울이 손에 닿아서야 정신을 차렸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때 머릿속에는 오직 ‘자전거를 돌려주자’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집으로 향했다.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중학교. 무더운 날씨를 말해주듯 우렁찬 매미 소리가 가득한 교실. 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절반은 나른한 날씨에 젖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3, 2, 1”

내 귓가에 속삭이는 성일이의 카운트 소리와 동시에 수업 종이 쳤고 담임선생님의 종례를 듣고나서 책가방을 챙겨 나왔다. 가장 친한 친구 성일이와 함께 피시방을 가기로 한 나는 들뜬 마음으로 복도에서 뛰었고, ‘박 고객’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학교 교감 선생님께 걸려서 구레나루 고속도로(잡고 비틀리는 벌)를 당했다. 옆에서 성일이는 나를 보며 킬킬댔다.

"너 뒤졌어."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성일이를 뒤쫓다 보니 교문 앞까지 왔다. 막상 녀석의 뒷덜미를 잡고 나니 아까의 짜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바보처럼 웃었다.

학교가 언덕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교문은 내리막길로 되어 있었고, 많은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하교를 하던 중이었다. 자전거가 없던 나는 그저 부러운 눈으로 흑흑 지나가는 친구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성일이 놈은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을 갔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우리는 피시방에 도착했다.

게임을 하며 고된 학업이 주는 스트레스를 열심히 날렸다. 그러다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던 나는 먼저 집에 간다고 했다.

"내가 내줄게. 좀 더 하고 가."

성일이에게 매번 신세 졌던 게 미안해서 집에 손님이 오신다는 핑계를 대고 피시방 밖으로 나왔다.

에어컨이 빵빵하던 피시방에서 나오니 밖은 더 덥게 느껴졌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그늘로 피해서 집으로 향하는데, 문득 건너편 피시방 앞에 세워진 자전거가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자전거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

순식간이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새워뒀던 내 자전거를 가져가는 것처럼 나는 행동했다. 자전거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다. 죄책감이라곤 없었다. 솔직히 별생각이 안 들었다. 그냥 나는 갖고 싶던 자전거를 얻은 것이었다. 오히려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나를 들뜨게 했고 자전거를 타고 교문을 지나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게 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자물쇠 가게에 들려서 자물쇠를 사가는 거야'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가다가 오르막길을 만나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 저 멀리서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한 할머니께서 종이를 잔뜩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며 올라가고 계셨다. 어릴 적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탓에 외할머니 밑에서 컸던 나는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이상하게도 더 눈길이 가고 짠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리어카 할머니께 다가갔다.

“할머니 언덕 오르기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이구 젊은 학생. 말만으로 됐어. 고마워.” 할머님은 땀을 닦으시며 손사래 치셨다.

“아니에요. 제가 좀 밀어드릴게요.” 하며 자전거를 한 손으로 끌고 나머지 손으로 리어카 뒤를 밀었다.

빙그레 웃으시며 함박웃음을 지으시는 할머니.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나와 같이 리어카를 밀었다. 그렇게 우리는 한 5분 정도 언덕을 올랐다. 언덕을 오르는 내내 ‘이 무거운 종이들을 모아가시면 하루에 얼마쯤 버실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지?’하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공무원연금으로 편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외할머니와 너무 다르게 살아가시는 분을 보니 나는 조금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할머니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언덕에 다 오르자 할머니께서 갑자기 500원 동전을 내게 내미셨다.

“하드 사 먹어 아가. 고마워 덕분에 힘 안 들이고 넘어왔어.”

“아니에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돈 있어요.”

“받아, 받아. 안 받으면 내가 미안해.”

계속 주시는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결국에 받았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이 더운 날 리어카에 종이를 모으러 돌아다니시는 거예요?”하고 내가 묻자 할머님은 사연을 얘기해 주셨다. 사실 할머니께서는 따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시며 생활하셔서 굳이 종이를 모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그런데 손주 생일이 다가와서 자전거를 선물로 주고 싶어서 돈을 모으시는 중이라고 하셨다. 어떤 사연

때문인지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셨지만 부모가 모두 도망치듯 떠나고 남은 손주와
둘이 사신다고 하셨다.

“할머니 안 힘드세요? 손주한테 자전거 안 사주면 이렇게 종이 안 주우셔도 되잖아요?”

내 물음에 한참을 생각하시다 씨익 웃으시면서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내가 좀 고생해서 부모 없는 우리 손주 웃는 얼굴 보게 된다면 나는 그걸로
됐어.”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

“좋은 자전거 사준 아부지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말혀.” 한 마디를 남기시고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내려가셨다.

나는 내생에 처음으로 내 자신이 창피했다.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내 옆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보고 있으니 할머니가 손자 자전거를 사 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종이
모으시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힘겹게 발걸음을 떼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계획대로 자전거
자물쇠를 샀다. 그리고 자전거를 집 앞에 세워놓은 채 집에 들어왔다.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멍하니 있었다. 원하던 자전거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지가 않았다.
자전거를 잊어버린 채로 집에 들어가 부모님께 죄송해서 말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아이 모습이 떠올랐고, 동시에 할머니께서 종이를 모은 돈으로 산 자전거를 받아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면서 그렇게 앉아있었다.

그렇게 반성의 시간을 가지다가 마음을 굳게 다잡고서 편지지에 편지를 써서 집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서 피시방으로 향했다.

피시방으로 가는 길, ‘혹시라도 자전거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에 집으로

몇 번씩이나 돌아갈 생각을 했으나 그때마다 방과 후 만났던 할머님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가지고 계속 나아갔다. 그렇게 피시방 앞에 도착했다.

다행히도 누가 지키고 서 있지는 않았다. 나는 자전거를 거치대에 세운 뒤 사온 자물쇠를 채우고 나서 피시방으로 들어갔다. 카운터에는 사장님으로 보이는 30대 남성분이 앉아 계셨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부들부들 떨면서 내미는 내 손에는 자전거 자물쇠 키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네. 제가 사실은요...” 말하며 나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드렸다. 자전거를 가져간 일, 할머님을 만난 일, 집에서 혼자 느꼈던 죄책감, 그리고 편지를 써서 다시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러 찾아온 일들을 말이다.

사장님은 내 얘기를 들으시는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얘기가 끝난 후에도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입을 여셨다.

“잘 왔다.”

“네?” 기대했던 질타가 아닌 칭찬에 놀란 나머지 나는 놀란 눈으로 사장님을 쳐다봤다.

“물론 너는 충분히 잘못했어.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건 혼나야 해. 그리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학생이 할머님을 도와드리면서 스스로 느낀 일, 반성을 하고 용기 내서 이렇게 다시 찾아와준 것들은 칭찬받을 만 해”

“아뇨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편지와 자물쇠 잘 전해줄게. 그리고 자초지종 설명해주고 학생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잘못을 깨닫고 바로 찾아왔다고 말해줄게. 그러면 자전거 주인 학생도 금방

마음이 풀릴 거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장님은 말씀하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남의 물건이 갖고 싶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물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해! 알겠지?”

“네... 명심할게요.”

불안감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내 눈은 어느새 새로운 삶의 의미로 가득 찼고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누가 보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항상 잊지 말자. 남의 물건도 내 물건처럼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이야.’

사장님은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요구르트에 빨대를 꽂아 내게 주셨다.

“먹고 기운 내 학생. 다음에 한번 놀러 오고.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인 걸로 하자.” 윙크를 하시며 손을 흔드시는 사장님과 인사를 나눈 후 피시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다.

푹푹 찌고 무더운 날씨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맑은 좋은 날로 다가왔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국어 시간에 본 ‘마음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라는 시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래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니까 세상도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앞으로 오늘 일을 잊지 말고 이렇게 나아가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집으로 향하였다. 어느덧 해는 지고 있었고 저녁노을이 하늘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노을을 바라보며 걷는데 신기하게도 ‘리어카 할머니와 자전거를 받고 기뻐하는 손자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노을은 내 마음도 따듯하게 물들었다. 정령한 세상